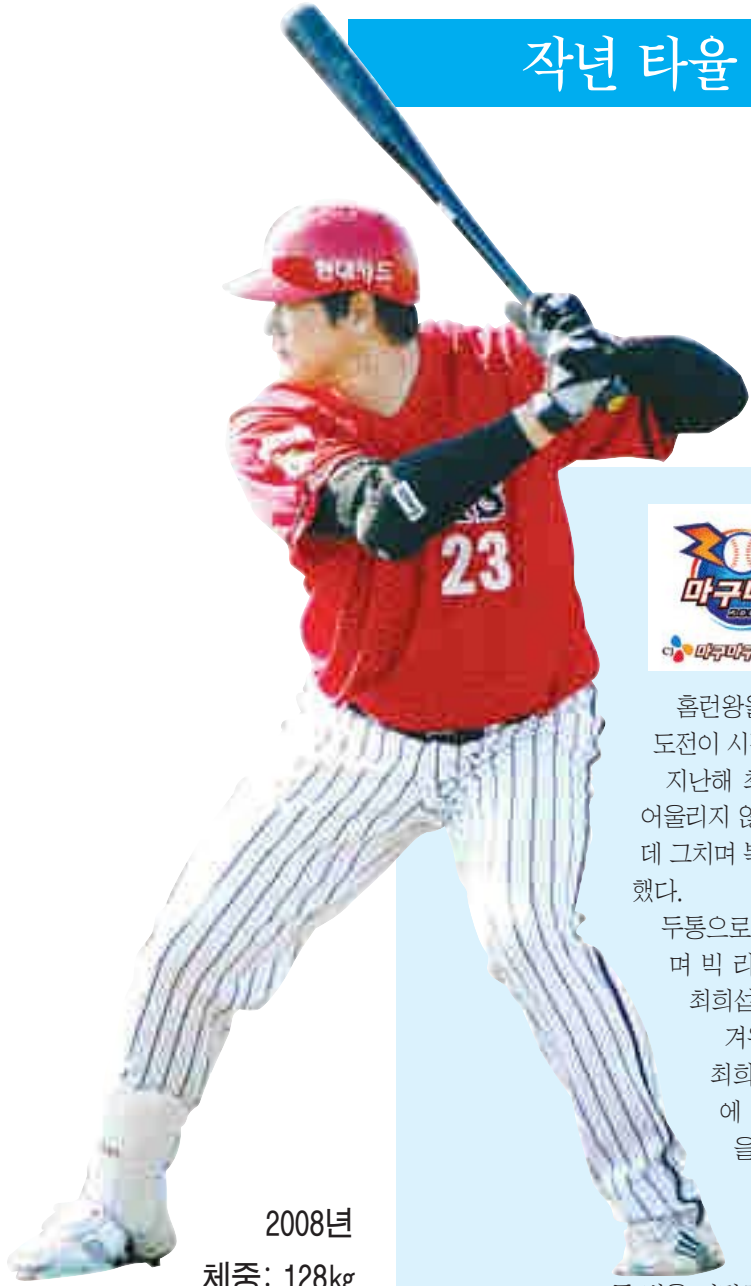


작년 타율 2할 2푼, 특히면 헛손질 → 올 타율 3할 2푼, 쳤다하면 홈런포

최희섭 화려한 변신



2008년
체중: 128kg
타격 폼: 스퀘어 스탠스
(두다리 타법)



20kg 체중감량, 타격 폼 바뀌 밀어치고 당겨치고... 홈런 7호포 단독선두

홈런왕을 향한 '빅 초이' 최희섭의 도전이 시작됐다. 지난해 최희섭은 '거포'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6개의 홈런을 기록하는데 그치며 복귀 후 두 번째 시즌을 마감했다.

두통으로 전지훈련 때부터 삐걱거리며 빅 리거로서의 자존심을 구졌던 최희섭의 변신이 눈부시다. 겨우내 훈련을 멈추지 않았던 최희섭은 20kg 가까이 체중감량에 성공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컨디션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부록 자신감도 불었다.

기술적인 변화도 됐다. 두 발을 나란히 두던 타격 폼에서 오른쪽 발을 바깥쪽으로 빼는 오픈 스탠스로 바뀌 몸쪽 공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였고, 오른쪽 다리를 드는 자연스러운 스트라

이드로 배팅 타이밍을 잡았다.

2009 시즌을 위해 '확실한 준비'를 한 최희섭은 몸쪽 바깥쪽 가리지 않고 밀어치고 또 당겨치면서 27일 현재 7개의 홈런으로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양적인 증가와 함께 홈런의 질도 지난해에 비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무엇보다 타석에서의 안정감이 돋보인다. 타격폼 수정과 함께 심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선구안이 눈에 띄게 좋아져,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든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든 자신있는 스윙이 나오고 있다.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히던 변화구 대처능력이 좋아져 직구(3개)는 물론 체인지업(2개), 슬라이더(2개)를 공략해 홈런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자신의 시즌 첫 홈런도 7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괴물' 투수 김광현의 133km짜리 슬라이더를 밀어쳐 만든 좌월홈런이었다.

좌타자이지만 왼손투수로부터 3개의 홈런을 뽑아내는 등 뚜렷한 약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점권 타율도 0.400에 달하면서 타점도 팀내 최다인 15점을 기록,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희섭은 22일 두산 베어스 임태훈을 상대로 투스트라이크 투볼에서 직구를 당겨쳐 역전 홈런을 때려냈고, 24일에도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을 상대로 윈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체인지업을 밀어쳐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7호 홈런을 만들어 승부를 뒤집었다.

아쉽게 불펜 난조로 두 경기 연속 재역전패를 당하는 바람에 최희섭의 역전 홈런이 빛바래기는 했지만 상대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통쾌한 홈런이었다.

수비 집중력도 한층 좋아졌다.

최희섭은 196cm 장신의 키를 이용한 폭 넓은 수비 범위와 날렵한 몸놀림으로 1루를 굳건히 수성하면서 내야에 힘을 더하고 있다.

'땀방울'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는 최희섭의 거침없는 행진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9년
체중: 109kg
타격 폼: 오픈 스탠스
(외다리 타법)



프로야구선수협 소민환 회장과 권시형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 트레이드 반대·권익위한 대리인제 도입

프로야구 선수협 노조설립 선언

KBO "노조 불가" 방침 고수... 파문 예상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선수 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선언, 프로야구계에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협회 소민환(롯데) 회장은 28일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야구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등으로 세계 정상급에 올랐음에도 선수들이 처한 현실은 제자리 걸음을 해왔다."

선수 권익을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해왔으나 묵살당했다며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현행 법률에 근거해 노조를 설립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선수협회는 각 구단별로 선수 2명씩 위원을 위촉하고 손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노조 설립 추진위원회를 곧바로 결성해 이른 시일내에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선수협회 권시형 사무총장은 "선수협회를 창립한지 10년이 다 됐지만 선수 권익은 달라진 게 없다."

전지훈련과 WBC 이후 8개 구단 대표가 미팅을 통해 노조 설립을 추진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모았고, 추진위를 발족한 다음 선수들의 의견을 확실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선수협회는 2000년 선수협의회 창립 직후 '600만 관중 시대를 열 때까지 사단법인 설립을 유보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문건 자체를 확인해야겠지만 사단법인 설립과 노조 설립은 별개 문제"라고 답했다.

선수협회는 그러나 노조 설립을 추진할

경우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가입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선수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에 대해서도 "언제든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 수 있다"고만 답했다.

선수협회는 선수 권익을 위한 현안으로 ▲대리인 제도 도입 ▲비활동기간 훈련금지 ▲일방적 트레이드 반대 ▲군 복무선수 보류수당 관련 소송 등을 제시했다.

KBO 이상일 총괄본부장은 선수협회의 노조 설립 선언에 대해 "일단 상황을 파악 중이다. 30일 이사회가 열리는 데 그때 8개 구단 사장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수협회가 노조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KBO가 '노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각 구단도 선수노조 결성이 시가상조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찬호 첫 승 네번째 도전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뉴욕 메츠를 상대로 시즌 첫 승리에 네 번째로 도전한다.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구단은 박찬호가 5월2일 오전 8시5분(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리는 메츠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고 28일 예고했다.

지난 세 차례 등판에서 각각 홈런을 허용하고 팀이 뒤진 상황에서 강판됐던 박찬호는 타선이 뒤늦게 터져 역전승을 거두면서 모두 패전을 면하는 흔치 않은 행운을 누렸다.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실력으로 첫 승리를 낚을 차례가 온 셈이다.

26일 플로리다 말린스와 경기에서는 실투 2개가 그대로 홈런 두 방으로 연결돼 분부를 삼켰지만 시즌 최다인 7이닝을 던졌고 삼진도 5개를 슈아내는 등 구위가 살아날 조짐을 보여 마수결이 승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다만 미팅한 변화구 각도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연아 "평창올림픽 유치 힘 보탬게요"

홍보대사 위촉

'피겨 요정' 김연아(19·고려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김연아는 28일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평창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을 다짐했다.

김연아는 위촉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없는데 2018년에는 평창에서 꼭 동계올림픽이 개최돼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동계스포츠의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연아는 "저는 밴쿠버에서 올림픽을 치르지만 어린 선수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린다면 좀 더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 꿈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아는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계획에 대해 "아직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 한국 피겨 스케이팅에도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을 해외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김연아는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2011년까지 선수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질문에는 "현재는 밴쿠버 올림픽이 가장 큰 목표인 만큼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김연아의 홍보대사 활동 계획에 대해 "김연아가 해외인문이나 국제 체육계 인사들을 접할 때 평창의 유치 당위성을 충분히 전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또 올림픽 유치 전장에

함께 전투요원으로 참가해 IOC 위원들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지애 의류 후원 계약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가 FnC코오롱 골프브랜드 잭 니클라우스와 2010년까지 의류후원계약을 맺었다고 28일 코오롱이 밝혔다.

신지애는 또 계약 기간 코오롱 계열사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홍보대사로도 활동한다.

27일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는 신지애의 생활을 맞아 생일 파티도 열렸다.

신지애는 5월1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출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연합뉴스



'피겨퀸' 김연아가 2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위촉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